

不安의 哲學者 『하이텍겔』(1)

-그 現代的 意義와 限界-

朴致祐

大戰 以後의 世界思想界에서 『말틴, 하이텍겔』의 哲學만큼 魅力있는 思想을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 主著 『存在와 時間』을 世上에 무른지 不過 十年에 哲學界는 勿論이고 널니 宗教 文學 等 一般 精神界의 各 部門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크나큰 波紋을 던지고도 淹음이 있다는 事實이 무엇보다도 이에 對한 現實的인 證在이다. 『不過 十年에』라는 이 事實은 아모리 적게 評價한다 치더라도 哲學에 關한 限 確實이 한 개의 『驚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驚異』는 그가 가진 남달리 優秀한 思想的 頭腦의 所致에만 돌니고 말 性質의 것은 아닐 것이다. 거기에는 반듯이 相副할 容觀的 條件이 임이 準備되어 있섯스리라는 事實도 또한 우리는 이저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大體 이르는 바 그 客觀的 條件이란 었던 것이엇든가? 이에 關한 社會思想史的 考察은 前者 現代哲學의 人間學的 關心의 上界을 問題 삼은 別個의 小論에서 不充分하나마 (특히 『루넛산스』와의 關聯에서)論한 일이 잇슴으로 여기서 詳細한 論述은 避할 作定이다. 여기서 視野를 좁혀서 主로 大戰과의 關聯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市民社會의 宿命的인 矛盾--특히 이 矛盾의 激化가 비저낸 世界大戰이 가져온 心的도 『充足』도하니고 反對로 『不安』과 『虛無』였을 뿐이였다. 大戰은 덕을 주는 代身에 배암(蛇)을 주었슬 뿐이였다. 『하이텍겔』의 思想이 繁殖될 沃土는 이에 이르러서 비로소 完全히 마련되게 된 것이니 不安의 哲學, 無의 形而上學이라는 일흠으로 불너지는 그의 思想이 이들 絶望的 生存, 精神的 『툼펜』의 心田에서 씨뿌릴 자리를 찾는 것쯤은 그다지 困難한 事業은 아니였을 것이다 그의 哲學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時代的인 不安과 虛無相의 『이데올로기』的 反映이였기 때문이다. 大戰以後의 거츨대로 거츨른 數만은 絶望的인 生存--특히 젊은 知識人--들은 『하이텍겔』의 思想 中에서 不安과 虛無에서 해매이는 바로 그 自身の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思想이란 언제나 現實에 對한 現象的인 反映만으로는 아직 偉大한 思想은 못되는 法이다. 現實을 거저 現象的으로 그려만 내었다고 이것이 대번에 讀者나 聽者나 觀衆에게 例外업시 感激, 共鳴, 同感 또는 『心醉』를 일으키는 것은 안인 것이다. 모든 偉大한 『리어리즘』의 作品이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思想에 잇서서도 또한 반드시 單純한 反映 以上の 『무엇』이 잇서야만 된다. 單純한 『거울』以上の 『에트바스』가 잇서야만 된다. 우리가 엮던 思想이나 作品에서 설사 나 自身の 肖像畵를 發見했다 치더라도 이것만으로 곧 例外업시 그의 共鳴者心醉者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우스는 예갓지만 體鏡에 비춰인 自身の 影子를 바라볼 때 滿足한 陶醉를 맞볼 수 잇는 至極히 幸福된 人間이란 極히 小數에 不過한 몇 개의 女人을 除하고는 잇슬 수 업다는 事實 조차 우리는 每日갓치 보는 배가 아닌가? 思想 또는 作品이 가지는 바 現象的인 反映은 『必要』한 條件은 되나 아직 『充分』한 條件은 못되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하이텍젤』의 不安의 思想이 오늘의 所謂 絶望的 生存의 苦惱相 잇다는 그 點만을 가지고는 아직 그의 思想이 가지는 바 世界的 傳染을 完全히 說明하였다고는 못할 것 갓다. 그러면 대체 그의 哲學이 가지는 바 가장 重要的 現代的 意義는 무엇인가? 그의 가장 現實인 根據는 어나 곳에 잇는 것인가?